

# 내 권리를 찾는 첫걸음: 산재 신청 완전정복 로드맵

복잡한 서류와 회사 눈치는 이제 그만. 가장 중요한 순간,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.



# 산재 신청, 법적 다툼이 아닌 치료와 회복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.

이 가이드는 환자인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.  
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:



1. 무엇을 해야 하는가  
(행동 요령)



2.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 
(심리적 장벽 해소)

# 산재 신청, 이 5단계만 기억하세요.

1. 사고 직후  
(골든타임)



사고 발생부터  
병원 방문까지

2. 서류 준비  
(핵심 3종)



필수 서류와  
회사와의 관계

3. 신청서 접수  
(제출 방법)



서류를 어디에  
어떻게 내는가

4. 조사 및 대기  
(공단 절차)



접수 후  
일어나는 일들

5. 결과 확인  
(승인/불승인)



결과 통보와  
다음 행동

# 병원에서 이 두 가지만은 꼭 하세요.



## 의사에게 말하기

의사에게 "일하다 다쳤다"고  
명확히 말하세요.

**Why:** 의무기록은 나중에 바꿀 수 없는  
가장 확실한 최초의 증거가 됩니다.



## 원무과에 요청하기

원무과에 "산재보험으로 처리"해달라고  
요청하세요.

**Tip:** 당장 산재 처리가 어렵다면, 우선 건강보험으로  
치료받고 나중에 산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걱정 마세요.

## 1단계: 사고 직후 (골든타임)

#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.



**사진/동영상:** 사고 현장, 사고를 유발한 기계나 장비, 다친 부위를 최대한 많이 찍어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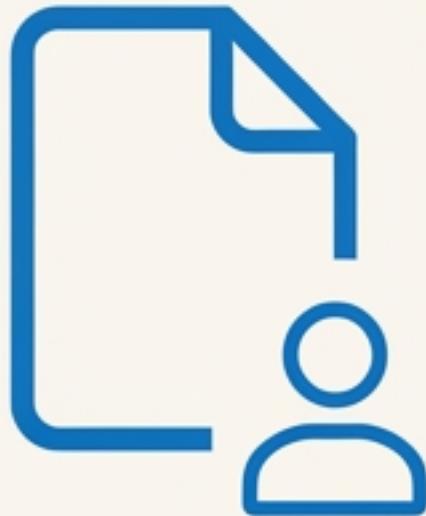


**목격자:**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, 당시 상황에 대해 나눈 대화를 간단히 메모해주세요.



**CCTV:** CCTV가 없다면 포기하지 마세요.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다른 동료의 휴대폰 영상 등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.

# 산재 신청의 핵심은 이 3가지 서류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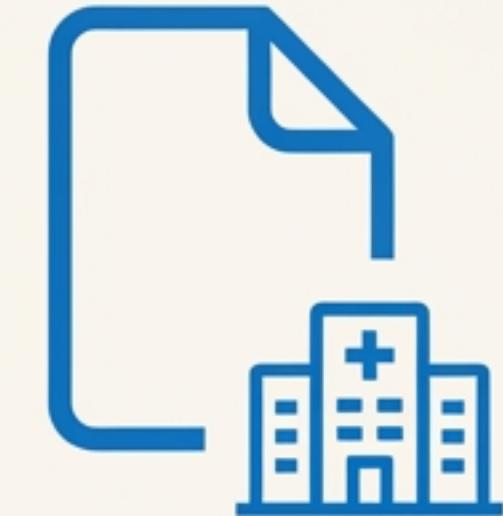
## 요양급여신청서 (내가 작성)

사고 경위 등을 직접 작성하는  
기본 신청서입니다.



## 산재 소견서 (의사가 작성)

**주의!** 일반 진단서와 다릅니다.  
반드시 '산재 소견서'를  
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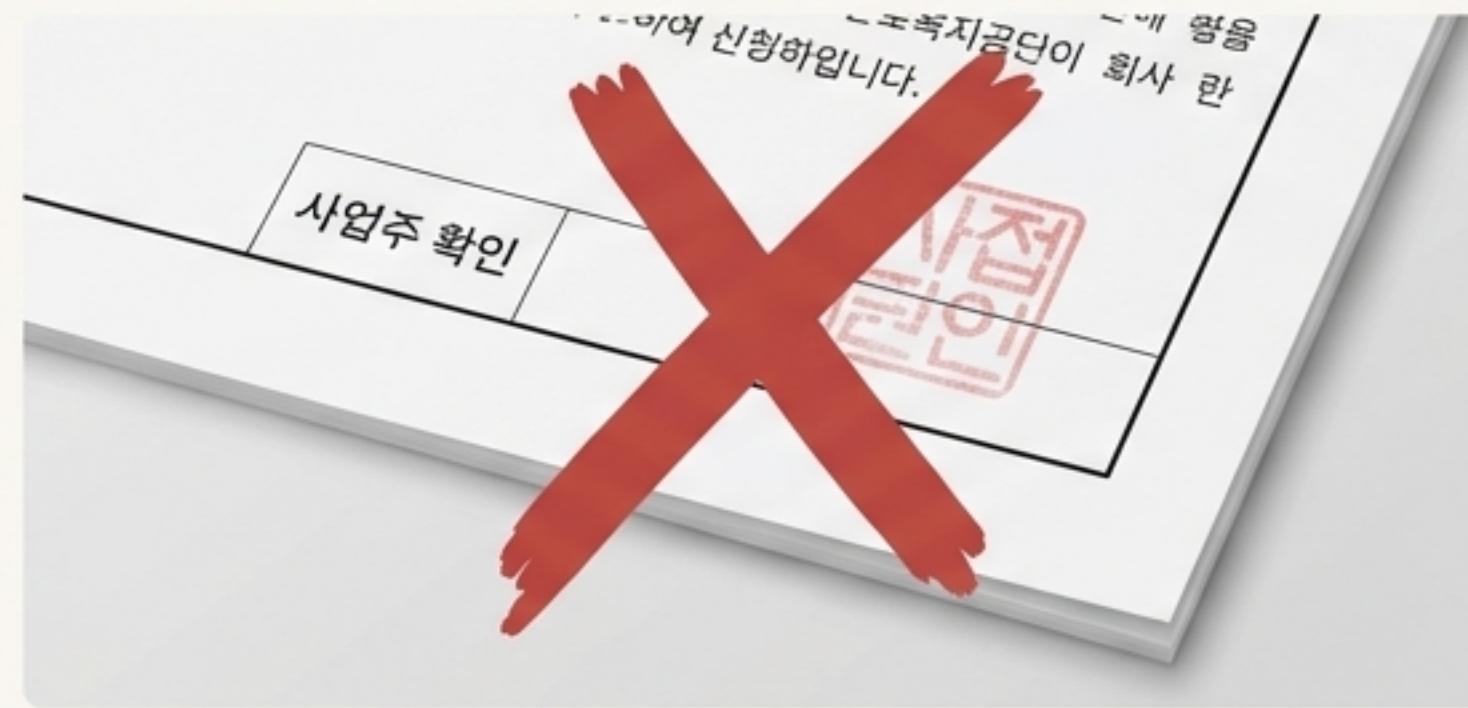


## 의무기록 사본 (병원이 발급)

초진 기록지, 검사 결과지 등  
모든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.

## 2단계: 서류 준비

**가장 많이 묻는 질문: "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."**



**결론: 사업주 날인(도장)은 필수가 아닙니다.**

사업주의 동의나 도장 없이도 산재 신청은 100% 가능합니다.

신청서의 '사업주 확인' 란은 비워두고 제출하세요.

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. 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.  
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.

## 2단계: 서류 준비

# 회사의 '공상 처리' 제안, 무엇이 다를까요?

구분	공상 처리 (회사와 합의)	산재 처리 (공식 절차)
치료비 보장	합의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장	✓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액 보장
휴업급여	보장 없음 (일 못하는 기간 소득 단절)	✓ 평균임금의 70% 지급
후유장해	보장 없음	✓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 보상금 지급
재발 시	보장 없음 (나중에 재발해도 책임 없음)	✓ 재요양 신청 가능

단기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,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재발까지 고려하면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.

### 3단계: 신청서 접수

## 신청은 회사가 아닌 '근로복지공단'에 직접 합니다.



- WHO : 본인 또는 가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WHERE : 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.



### 1. 병원 대행 (가장 편리)

대부분의 병원 원무과에서  
산재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.  
“산재 신청 대행”을 문의하세요.



### 2. 직접 제출

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 
우편, 팩스로 제출합니다.



### 3. 온라인 접수

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  
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

## 서류 제출 후, 공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.



### 담당자 배정

내 사건을 전담할 공단 조사관이 정해집니다.



### 전화 연락 및 문답서 작성

조사관이 연락해 사고 경위를 물습니다.

육하원칙에 따라 아는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하면 됩니다.



### (필요시) 현장 조사

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단 직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.

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. 아는 그대로,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## 4단계: 조사 및 대기

# 특별 케이스: 사고가 아닌 '업무상 질병'의 경우

### What it 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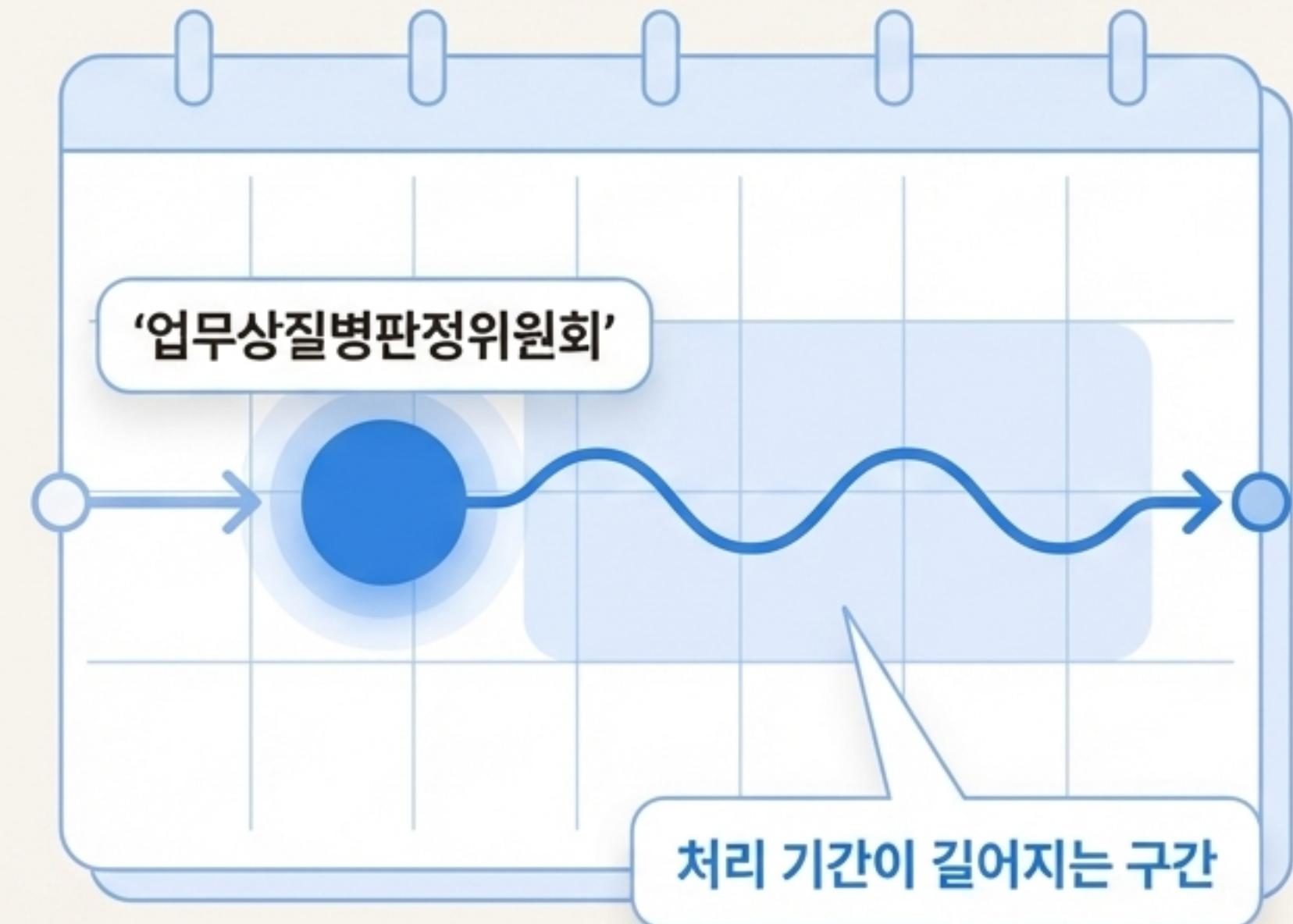
골절 같은 명확한 사고가 아닌, 업무로 인해 서서히 발생한 질병 (예: 허리디스크, 뇌심혈관 질환, 직업성 암 등)

### Key Difference

'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'라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추가로 거쳐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.

### Important Notice

이 위원회 절차 때문에, 처리 기간이 일반 사고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. (수개월 이상 소요)  
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
## 5단계: 결과 확인

# 승인: 축하합니다!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세요.



## 1. '요양 결정 통지서' 받기

이 서류가 공식적인 승인의 증거입니다.  
병원에 제출하세요.



## 2. 병원비 돌려받기

승인 이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병원비가  
있다면, '요양비 청구'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 
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영수증을 잘 챙겨주세요.

# 불승인: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

불승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,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 
**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**



이 단계부터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**노무사,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**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.

# 핵심 요약: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



**기록이 증거다:** 병원 첫 방문 시 "일하다  
다쳤다"는 말을 반드시 남기세요.



**신청은 나의 권리:** 사장님 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'공상 처리'보다 산재가 유리합니다.



**제출은 공단에:**  
신청서는 회사가 아니라  
'근로복지공단'에  
제출하는 것입니다.



**불승인은 끝이 아니다:**  
결과가 실망스러워도  
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 당신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합니다.

산재 관련 모든 문의  
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

**1588-0075**

노동 관련 법률 상담  
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
**국번없이 1350**



근로복지공단



고용노동부